

‘젊은 의회’ 시민 참여·소통 노력

전문성 돋보인 의정활동 ‘호평’

■ 제6대 광주시의회 결산

제6대 광주시의회는 전체 의원 26명 가운데 초선이 21명에 달했던 만큼 ‘젊은 패기’를 앞세워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고, 시민소통과 시민참여를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반면, 일부 조례 제정 과정에서는 의욕만을 앞세워 밀어붙였다가 효력이 상실되는 등 잇단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6대 광주시의회가 지난 4년간 처리했던 조례안은 총 546건으로 그 중 의원 발의 건수가 29%로 전체 49.1%를 차지했다. 이같은 조례안 처리는 앞선 5대 의회에서 처리한 조례안 412건, 의원발의 119건(전체 28.9%)과 비교했을 때 크게 늘어난 수치다.

특히 집행부에서 만든 조례를 수동적으로 처리하는 대신 의원 발의가 절반에 가까웠을 뿐만 아니라 의회 전반적인 2010년과 2011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의

■ 꼼꼼한 행정사무감사, 집행부 감사·전제 기능 성과

학교자치 조례안 등 밀어붙이기식 주민발의 제도도

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또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기능을 대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줬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처리 요구와 건의 등 매년 평균 581건을 처리했다.

이 또한 4대 의회(평균 242.75건), 5대 의회(평균 218.5건)에 비하면 두 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시민 소통 및 참여, 의원들의 각종 연구회 활성화가 이같은 성과를 이뤄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밖에도 ‘고려인 지원 조례’, ‘교원보호 조례’, ‘SSM개설 제한 조례’ 등의 의미 있는 조례를 전국 최초로 만드는 성과를 일궈냈다.

반면, 주민 발의로 이뤄진 ‘학교자치 조례안’과 ‘지방공기업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공청회 운영조례’는 대법원까지 가는 우여곡절 끝에 효력저지 및 무효화 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무효화는 됐지만, 지방공기업 인사검증 조례안 등은 지방의회에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로 남기도 했다.

그러나 전·하반기 의장 선거과정에서 ‘자리 나눠먹기’라는 구태 반복, 지역구 국회의원의 등 중앙정치에 예속된 계파정치 모습, 여론 수렴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유급보좌관제 도입, 상임위 삭감 예산의 예결위 및 본회의 부활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제9대 전남도의회 결산

조례 등 810건 안전 처리...지역문제 적극 반영

일당 독점 폐해 여전...비리·음주운전 등 구태도

제9대 전남도의회는 지난 4년 동안 정례회 8회, 임시회 28회 등 총 36회에 걸쳐 490일간의 의사일정에서 조례안 457건(의원발의 250건), 건의 및 결의안 136건, 건의 16건, 기타 안건 201건 등 총 81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제8대 의원발의가 102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크게 증가한 셈이다.

의원들의 뜻을 전달하는 결의안과 건의안도 같은 기간 동안 70건에서 136건으로 늘었다. 의원 발의가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의원들이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지역문제를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하려 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구태’도 여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구 민주당) 소속 도의원의 일당 독점 도의회 구성 이후 되풀이되면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는 사례가 이어졌으며, 비리와 음주운전 등 범죄를 저지르는 수준 낮은 도의원들의 행태

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의장이 황령 협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되고, 한 의원은 지역구에서 도박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으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도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 나서는 ‘춘풍’도 벌어졌다. 또 F1대회 신용장 동의안 등 중요 사안을 전남도의 입맛대로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시키는 등 의정활동도 여전히 거수기에 그치고 있다는 비난도 받았다.

재적의원 62명 중 교육위원 5명을 제외한 47명이 당시 민주당 소속 탓에 지역과 지역민보다는 ‘당’의 공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한계도 지적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도의원이 발의한 조례 250건은 전국 광역지방의회에서 최고로 손꼽힐 만큼 전문성과 다양성

을 자랑했다는 평가도 있다.

지난 2011년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지정 운영 조례’가 한국지방자치학회로부터 ‘우수조례 단체 대상’을 수상했으며, ‘전라남도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와 ‘전라남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은퇴도시 조성사업 지원 조례’ 등은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됐다.

‘광주~목포 구간 KTX 노선 신설 촉구 결의안’, ‘할 수급 안정과 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양파·고구마 가격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등은 지역의 여론을 지자체와 정부에 전달하는 창구가 되기도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새정치, 19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후보 8명 확정

산자위원장 김동철 의원 내정

교문위원장은 설훈·박주선 의원이 1년씩 맡기로

19대 국회 후반기가 이질 국회 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위원장단이 사실상 결정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는 19일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당 몫 국회 상임위원장 후보자 8명을 발표했다.

법사위원장에 이상민 의원을 비롯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설훈(박주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우남, 산업자원위원장 김동철,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 환경노동위원장 김영주, 국토교통위원장 박기춘, 여성위원장을 유승희 의원 등을 각각 내정했다.

교문위원장은 설 의원과 박주선 의원이 1년씩 나눠 맡기로 합의했다. 연장자인 박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장을 제안받는 등 수차례 다른 위원장직을 제의받았으나 2015년 아시아문화전당의 차질 없는 개관 등 광주지역의 현안을 챙겨야 한다는 생각에서 교문위원장을 희망해왔다. 설 의원은 19대 상반기 국회에서 교문위원장을 신학용 의원에 양보했다는 등의 이유로 강하게 교문위원장 직을 요구했다.

경쟁이 이어지자 원내지도부는 1년씩 하는 대안을 제시했고 박 의원은 아시아문화전당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광주시민의 뜻에 따라 처리하고 하계유니버시아드·국제수영경기대회 등의 성공 개최를

최대한 지원한다는 등의 내용을 새정치연합의 당론으로 확정해주시라는 제안을 하면서 원내지도부의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박 의원의 제안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진됐다. 박 의원은 또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국제경기대회 지원을 위해 국회가 다시 구성할 ‘국제경기대회 지원특별위원회’의 새 위원장을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단은 또 다른 상임위원장도 1년 뒤 물러나고 해당 자리를 노영민 의원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이 말을 상임위는 산업위로 알려졌다.

하지만, 산업위원장에 내정된 김동철 의원은 “1년씩 나눠 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한 적 없다”며 “산업위원장직을 2년 하는 것으로 알고 일할 것”이라고 반발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의총에서 ▲법사위원장에 ▲정무위 김기식 ▲기재위 윤호중 ▲미방위 이상호 ▲교문위 김태년 ▲외교통외 심재관 ▲국방위 윤우덕 ▲농해수위 유성엽 ▲안행위 정청래 ▲산입위 백재현 ▲환노위 이인영 ▲국토위 정성호 ▲정보위 신경민 ▲복지위 김성주 ▲여가위 남윤인 순 후반기 각 상임위 간사단 명단을 발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野, 본회의 대책 속의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왼쪽 가운데), 김재윤 전라북도본부장(위),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 이인영 의원이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7·30 재보선 브리핑

조순용, 순천·곡성 출마행보...새정치 공천경쟁 나서

조순용(63)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7·30 재보선 순천·곡성 국회의원 선거 출마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조 전 수석은 최근 지역사무실을 열고 지역여론을 수렴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 공천경쟁에 나섰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011년 8월 순천·곡성 보궐 선거에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아권연대로 인해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낙선 한 뒤 지난 2012년 서울 용산구에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조 전 수석은 19일 “과거의 실책이 하나하나 교훈과 경험으로 남아 있다”며 “이번에 공천을 받아 고향 순천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분골쇄신 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은 조만간 출마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정복진, 나주·화순 출마 선언...“지역 자존심 회복”

서울시의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사를 지낸 정복진(66) 법무법인 양재 고문인 7·30 재보선에서 나주·화순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정 고문은 “지난 12일 배기운 의원의 국회의원직 상실 판결을 보면서 정치권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지역이 처한 현실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실종된 지역정치의 리더십을 다시 세우겠다”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정 고문은 김대중 총재 수행비서와 서울시의원, 민주당 중앙당 인권위원회 부

위원장 등 오랜 정치 경험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사 등 9년간의 공기업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중앙과 지역정치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고문은 지역 갈등조정위원회를 만들어 나주와 화순의 골 깊은 갈등 조정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덩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주 381-0061, 352-7788, 676-7719, 512-7998

목포(삼화) 274-5987, 목포(건영) 243-7463,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02-454-7722
기타지역 080-777-0555

2014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안내**

1. 전형일정

- ① 원서 접수 : 2014. 6. 13(금) ~ 6. 20(금)
-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② 전 형 일 : 2014. 6. 26(목) 오후 3:00
- ※ 필기시험 - 신학과(Th.M.), 신학과(M.Div.) ※ 실기시험 - 음악학과(M.A.)
- ③ 합격자발표 : 2014. 6. 30(월) 오전 10:00
- ④ 등록기간 : 2014. 7. 1(화) ~ 7. 4(금)

2. 모집학과 및 인원 : 56명

대 학 원	학위과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일반대학원	석사	신 학 과 (신학석사 Master of Theology;Th.M.)	9
		신학연구학과 (문학석사 Master of Arts in Theology;M.A.T.)	4
		유아교육학과 (교육학석사 Master of Education;M.Ed.)	1
		음악학과 (음악학석사 Master of Arts in Music;M.A.)	3
신학대학원	석사	신 학 과 (목회학석사 Master of Divinity;M.Div.)	22
교육대학원	석사	교 육 학 과 (교육학석사 Master of Education;M.Ed.)	16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 (교육학석사 Master of Education;M.Ed.)	1
합 계			56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학지로 36 입학문의 ▶ 062) 605-1115, 1024, 1021